

박지성, “이강인 카타르 갈 것 한국 16강 가능성 50% 이하”



▲ 2021년 3월 일본과의 평가전 당시 이강인. 박지성(작은 사진)은 이강인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진=SBS 프로그램 캡처, 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사진)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이강인이 뽑힐 것으로 내다봤다.

박지성은 지난 29일 S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인이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에 뽑혔다. 평가전이기 때문에 한 번쯤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았다.” 고 돌아봤다.

이강인은 9월에 치른 두 차례 친선 A매치 코스타리카 전과 카메룬전에 모두 결장했다. 카메룬전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은 5만 9천여 관중들은 후반전이 되자 “이강인! 이강인!” 을 외쳤지만 벤투 감독은 끝내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았다.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까지 약 1개월 반이 남았다. 박지성은 “(이강인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 최종 엔트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인 스스로 낙심하지 않고 소속팀에서 잘해서 본인의 모습을 증명하길 바란다.” 고 이강인을 응원했다.

박지성은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 “H조는 어려운 조다. 우리는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입장”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16강 진출을 원한다. 하지만 가능성이 50% 이상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 얼마나 준비하느냐, 월드컵에서 운이 얼마나 따라주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함께 H조에 편성됐다. 각각 남미, 아프리카, 유럽을 대표하는 강팀이다.

레프스나이다 “KBO로부터 WBC 출전 제안 받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국계 메이저리거 룩 레프스나이다(31·보스턴 레드삭스·사진)에게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대표팀으로 뛰어들 것을 요청했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레프스나이다는 최근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KBO 관계자와 만나 2023 WBC 한국 대표팀 합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고 밝혔다.

1991년 서울에서 태어난 레프스나이다는 5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독일계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어머니 품에서 자랐다.

2012년 양키스에 지명돼 2015년 7월 양키스에서 빅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2017년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트레이드 됐고 탬파베이 레이스와 텍사스 레인저스, 미네소타 트윈스를 거쳐 지난해 11월 보스턴과 마이너 리그 계약을 맺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보스턴 외야수로 뛰며 이날까지 타율 0.303(142타수 43안타), 5홈런, 17타점을 올리고 있다.

WBC는 출전 선수들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모의 출신을 따져 경기에 나설 수 있다. KBO는 이전 대회에선 한국 국적 선수들만 대표팀을 꾸렸지만 이번 대회에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인 부모를 둔 선수의 대표팀 합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레프스나이다는 아직 보스턴에서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어 내년 시즌 준비가 한창인 3월에 열리는 WBC 출전을 고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레이커스 “수비력 없으면 출전 못 해”



▲ 다빈 햄 LA 레이커스 신임 감독. 사진=nba.com

레이커스의 주전 포인트가드는 수비력에서 갈릴 전망이다.

지난 27일 농구전문매체 ‘점프볼’에 따르면 LA 레이커스의 신임 감독 다빈 햄이 러셀 웨스트브룩 기용법에 대해 언급했다. 웨스트브룩은 리그를 대표하는 포인트가드이자 정규리그 MVP 수상자 출신이다. 이런 그를 두고 햄 감독은 “주전 후보 중 한 명일 뿐” 이라고 못 박았다.

햄 감독은 “새로 영입한 데니스 슈르더, 패트릭 베벌리에 건강한 켄드릭 년, 오스틴 리브스까지 있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 이 중 출전시간을 받게 될 선수는 수비적인 마인드가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수비적인 마인드셋을 확립해야 한다. 나가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선수만이 출전시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가 내건 주전 자리를 위한 단일 조건은 오직 수비력이다. 햄 감독의 이와 같은 생각에 따라 차기 시즌 웨스트브룩의 주전 출전을 낙관하기는 어려워졌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서 이적해온 패트릭 베벌리는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 스페셜리스트이고 오스틴 리브스 역시 젊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이다.

데뷔 시즌 이후 한 번도 벤치에서 출전한 적 없는 웨스트브룩이 만일 곧 열릴 트레이닝 캠프에서 수비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차기 시즌 그는 벤치 신세를 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499	\$274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2년 현재 170.1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719	\$2,309
Asset Limit	\$15,510	\$30,95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